시나리오

(막14:10-21)

10. ○열둘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11.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12.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13. 예수께서 제자 중의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14.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15.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16.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21.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바로 시나리오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마리아가 옥합을 깬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것은 자기의 미래를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묶어버리고, 자기의 미래를 접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그 어떤 남자에게도 자기 인생의 미래와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마음을 주지 않

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월절 음식을 드실 곳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둘러싸고 앞뒤로 가룟유다의 얘기가 나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이유를 본문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시나리오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나리오가 뭐죠?
영화를 만들기 위한 각본입니다.
그 각본인 시나리오 안을 들여다보면, 각 장면에 대한 묘사와 순서가 나와 있고 그 장면 속에서 배우들이 해야 될 말과 행동, 연기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장소, 무대장치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각본이고, 이 시나리오대로 영화를 찍으며 만들어갑니다.
영화뿐이겠습니까?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시나리오라는 것이 이제는 영화 계통에만 쓰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주일 대예배 때에 사회를 봅니다.
담임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게 되고 부목사들이 1부부터 5부까지 예배를 진행하면서 광고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의 개성이나 특성이나 신앙적 색깔이 사회 보는 데에 나타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시나리오가 주어집니다.
예배를 담당하는 예배부가 있는데 예배부목사님께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사회 보는 목사님들에게 넘겨주십니다.
예배에 임하기 전에 그 파일을 열어보면, 맨 처음에 괄호 열고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강대상에서 보면 2층 벽 위에 시계가 있습니다, 그 시계를 보고 예배시간 2분 전이 되면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파일을 들고 천천히 강대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파일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오르간반주자의 연주가 중단될 것입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 보는 목사님이 할 말이 다 쓰여 있어요.
'자 이제부터 기도하심으로 주일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적혀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5부로 드려지는 예배의 사회를 보는 모든 목사님이 동일한 멘트를 통하여 예배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박근혜 씨와 야당의 후보가 선거를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쯤 각 정당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위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방송계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시나리오를 둘러싼 작가와 배우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작가들이 완전한 대본을 내놓지 못하고 쪽대본을 내놓는 경우에 (쪽대본은 장면을 찍을 때 그때그때 대본을 주는 걸 말해요) 처음 제시했던 배우가 연기해야 될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에 어긋난다든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인기가 있는 부분을 더 강조하느라고 원래 약정된 연기부분을 다 빼놓는다든지, 이렇게 시나리오가 변하고 시나리오의 개연성이 없어지고 캐릭터에 무리수가 주어질 때, 배우들이 연기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작가와 갈등을 겪게 된다는 얘깁니다.

이와 비슷한 갈등 때문에 바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진행을 보면 10절과 11절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12절부터 16절까지 유월절 식사를 하실 곳을 준비하는 과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7절부터 21절, 유월절 식사를 하려고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식사로 곧바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당신을 팔 가룟유다에 대한 언급을 하시게 됩니다.
가룟유다 이야기가 앞뒤로 있고 그 사이에 유월절 식사 준비과정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제자가 성으로 보내집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을 만나면 전혀 그 사람과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쫓아갈 것이며,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을 불러내서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실 장소를 필요로 한다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장소를 보여줄 것이고, 그러면 그곳에서 유월절 식사준비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유월절 식사에 대한 준비과정을 왜 이렇게 소상하게 말씀하실까요?
더군다나 이제 2, 3일 뒤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과 행적을 다 기록하려면 이 지구 위에 그 책을 둘 데가 없을 정도로 많다'고 했는데, 어차피 성경이 선별하여 기록하고 있는 바에는 뭐 이런 이야

기까지 다 썼을까?
이게 바로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가룟유다가 앞뒤로 이야기 되고 있고, 가운데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유월절 식사준비가 시나리오대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바로 이 시나리오의 문제 때문이었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고, 이게 시나리오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21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사건이 기록된 대로 가는 겁니다.
이 기록된 대로 간다는 것이 뭡니까?
시나리오를 따라 간다는 얘깁니다.
자, 유월절 식사가 준비되는 과정을 봅니다.
'어디서 식사를 하시게끔 우리가 준비할까요?'
제자 둘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여기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남성명사인 '안트로포스'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물동이라는 것은 유대 땅에서는 여자들이 주로 지고 다녔어요.
그러므로 굉장히 눈에 띠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타이밍과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우두커니 서서 제자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었다면 (가지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시 시계도 핸드폰도 없던 상황에서 어떻게 약속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시나리오를 주님께서 특별히 이 십자가 전에 시나리오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그리고 제자들이 물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말도 한 마디 하지 않고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시나리오대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의 주인을 찾으면 주인이 나올 겁니다.
주인에게 이렇게 이렇게 말하라, 그대로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준비를 하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유월절 식사도 시나리오처럼 관습상 정해져 있었어요.
쓴 나물과 양고기, 양념류와 무교병, 정해져 있는 대로 준비하는 이게 다 시나리오라는 얘깁니다.

자, 결국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자신도 21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아버지께서 적어놓으신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면서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유다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제쳐버리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시나리오를 고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불치병자를 낫게 하시는 역사를 하실 때까지는 유다가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쓴 시나리오와 같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음을 향해 가시는 발걸음이 확정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예수님께 주어지는 시나리오를 따라서 자기 인생을 맞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시나리오가 있었기 때문에…
마치 배우가 작가가 주는 쪽대본이 어제 연기한 캐릭터와는 너무나 상반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연기할 수 없다고 집어던지고 떠나버리는, 한 예슬 씨가 드라마를 찍으면서 미국으로 떠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다 이런 문제가 얽혀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룟유다가 더 이상은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내가 마음속에 원하는 소원대로 시나리오가 적혀 있는 바, 그것과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마리아의 옥합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마리아는 나름대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 주며 사랑할만한 남자를 만날 것을 기대했고, 그 남자를 만나면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이었습니다.
옥합을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그 옥합 안에는 향유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마리아의 미래가 들어있고 이제 그런 미래를 베팅할 수 있을만한 남자를 만날 경우에 옥합을 깰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예수라는 청년이 마리아의 인생에 개입하게 되면서 만나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예수 주변에 맴돌면서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측하면서 마리아가 마음을 정합니다.
내 미래에 내 마음을 줄, 내 인생을 베팅할 남자에게 줄 마음, 그 마음을 담은 향유 옥합, 예수님에게 줘버리기로 결정하는데, 이제 그 결정의 시기가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확정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장례를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장례를 준비했다고.
마리아가 모르고 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분명히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리아의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모두에게 다 공개적으로 예고를 하고 계시

는 가운데.
죽음을 향해 가는 예수님에게 마음을 다 드려버리고 자기의 미래를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묻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과 같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 몸이 예수님과 같이 죽지 않았지만 마음은 그 미래에 대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접어버렸습니다.
이제 죽지 않은 마리아의 몸에 일어나는 미래의 삶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적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는 얘깁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미래의 시나리오를 함께 묻어버릴 경우, 주님의 죽음 속에 파묻어버릴 경우에 이제 십자가를 기점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내 미래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여갈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이렇게 소상하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나리오대로 주님께서 말씀해주셨고 그대로 일어난 것처럼, 내 미래를 마리아처럼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연합해서 미래를 접어버리는, 내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미래, 내 마음이 계획하고 있는 미래, 내 마음이 써놓은 시나리오를 다 묻어버릴 경우에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작동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해주고 계십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알아서 배우가 대본을 읽듯이 그렇게 읽으면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사도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과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를 기억해내며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는 겁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인생의 미래를 주님의 십자가에 파묻어버리고 미래를 접어버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이 날마다 반복되는 가운데 점점 더 우리가 그 죽음에 몰입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해를 반복하고 달을 반복하고 날을 반복하는 동안에 십자가에서의 주님과 연합한 죽음이 점점 더 용이해집니다.
이렇게 죽음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점점 더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앞에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 잡혀갈 때 무엇을 얘기할지 염려하지 말라, 잡

혀가서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할 경우에 무엇을 대답해야 될지는 그 자리에서 그때 성령께서 이야기해 주실 것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찍을 때는 쪽대본이 문제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쪽대본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국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작가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쪽대본을 써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 대해 완성된 시나리오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쪽대본을 그때그때 주신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마음을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세상에 대해 죽을 수 있을 때,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언제나 위의 것을 찾을 뿐입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와 과제가 주어지더라도 언제나 우리 마음을 위를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나의 희로애락이 결정될 것을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것은 신경 안 써도 행복할 수 있고 신경 안 써도 말할 수 있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일이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룟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없이 태어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담을 지었을 때, 아담 속에서 이 세상 마지막 인간까지 다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만들어놓으셨던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께 불가능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게 되면서부터 인간이 태어나면서 타락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던 사람이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유전자 때문에 자기 시나리오를 자기가 만들던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놓은 자기 인생의 시나리오를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음과 함께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서 죄 사함만 받고난 뒤에 자기 미래에 대해서는 자기가 소원하고 계획하는 바를 예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이루겠다고 자기 시나리오에 예수님이 배우로써 행동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은 가룟유다와 똑같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소원을 갖고 자기가 시나리오를 쓰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시나리오 안에 들어와서 시나리오의 최종목적을 향하여 가는 역할을 하는 배우로 모셔드리려고 하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시나리오를 묻어버리는 대신 끝까지 자기 시나리오를 고집하는 이 사람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음과 연합함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시작됩니다.
그 미래는 하나님의 미래에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나의 미래입니다.
내가 마음을 둘 미래가 아닙니다.
내 마음은 언제나 지금 여기서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대해 죽으며 내 마음이 위로만 향할 수 있게, 내 미래 앞으로 향하는 대신 위로만 향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아버지를 느끼고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천국의 기운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내 과제입니다.
평생 나는 모든 순간에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써두신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나리오!
이것이 바로 문제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다는 주님의 탄식어린 이 말씀이 내게는 적용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하여 내가 이루려는 소원을 갖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것을 고집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조차 그 시나리오 안에 들어와 역사하셔야 되는 하나의 배우로 믿는 그런 이상한 믿음은 중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이 정하신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